
보 도 자 료

발 신	제7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2)
담당자	정혜연 (Bella Jung) pr.mediacityseoul@gmail.com T.070-4473-8858, M.010_4277-9997
총 매수	4매
보도협조일	2012년 7월 11일

제7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2) 참여 작가 발표 - 17개국 50명 작가 전시 참여 예정 -

2012년 9월 덕수궁 돌담길에 위치한 서울 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국내외 유명 미디어 아트 작가 50명이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주문을 건다. 참여 작가들은 관객과 작품, 관객과 작가, 관객과 관객 등의 다각적 소통이 가능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7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2)는 (이하 미디어 시티 서울 2012) ‘너에게 주문을 건다 / Spell on you’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17개국, 50명의 작가를 초청하여 기획전시를 선보인다. 9월 11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55일 동안 열리는 이 전시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영상, 설치, 미디어 작품들로 구성 될 예정이다.

전시 주제인 ‘Spell on you’는 미국의 블루스 가수 스크리밍 제이 호킨스가 1956년에 발표한 노래 ‘I put a spell on you’에서 차용한 제목으로 초월적 힘을 빌려 자신의 바람을 실현시키려는 인간의 욕망을 ‘Spell(주문)’이라는 단어를 통해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진상 전시 총감독은 “전시 참여 작가들은 전시 주제인 ‘Spell on you’(너에게 주문을 건다)가 함축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예술적인 차원에서 탁월하게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일 것이며, ‘Spell on you’라는 주제를 통해 사회적 소통의 기술적 변형이 몰고 온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다루고자 한다.”고 전했다.

Spell on you

미디어시티 서울 2012의 로고마크

미디어시티 서울 2012에서 선보일 많은 작품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고통과 희망에 대한 비평적 담론과 인문학적인 관점들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제시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아트가 동시대 미술의 스펙트럼을 풍부하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언급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유진상 전시 총감독을 중심으로 일본의 저명한 미디어아트 비평가이자 큐레이터인 유키코 시카타,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의 디렉터 올로프 반 빈든, 그리고 현재 미국 '제로원 비엔날레'의 공동 큐레이터로 활동 중인 최두은 전 아트센터 나비 큐레이터가 공동 큐레이터로 참여하여 전시의 주제에 깊이를 더하고 있다.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 상암 DMC(디지털 미디어 시티) 홍보관 두 곳에서 열릴 예정이며, 한빛 미디어보드 및 서울 스퀘어에서도 작품이 소개된다. 또한 서울시 금천예술공장과 연계하여 전시가 열릴 예정이며, 일본 YCAM(야마구치 미디어아트 센터)의 오디오 워크숍 프로그램과 미국 산호세에서 열리는 제로원 비엔날레 (ZERO1 Biennial)와 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오프닝 기간 중인 9월 13일에는 상암 DMC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미디어시티 서울 2012와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개최 될 예정이며, 그 다음 날인 9월 14일에는 '재난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피테 인스티튜트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열리게 되는데,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3.11 재난과 그 이후의 환경 및 원자력에 관한 논의를 예술, 미디어,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모든 전시와 행사의 입장료는 무료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할 작가들은 다음과 같다. (최종 참여 작가 목록은 변동 가능.)

Adel Abdessemed (아델 압데세메드)
Marina Abramović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Romy Archituv (로미 아키투브)
Zbyněk Baladrán (즈비넥 발라드란)
Bang&Lee (방&리)
Maurice Benayoun (모리스 베나운)
blablaLAB (블라블라랩)
David Bowen (데이비드 보웬)

최재은 (Jae-eun Choi)
David Claerbout (데이비드 클레어바우트)
dNA(double negatives Architecture 디엔에이)
에브리웨어 (everyware)
Exonemo (엑소네모)
Dennis Feser (데니스 페저)
Nina Fischer & Maroan El Sani (니나 피셔 & 마로안 엘 사니)
Dominic Gagnon (도미니크 가농)
Haque Design +Research (헤이크 디자인 +리서치)
Jonathan Harris & Sep Kamvar (조나단 해리스 & 셉 캄바르)
Jenny Holzer (제니 홀저), 홍성민 (Hong Sungmin)
홍승혜 (Hong Seung-Hye)
HYBE (하이브)
Ryoji Ikeda (료지 이케다)
정연두 (Yeondoo Jung)
Floris Kaayk (플로리스 카이크)
So Kanno & Takahiro Yamaguchi (소 칸노 & 타카히로 야마구치)
JK Keller (JK 켈러)
김기철 (Kichul Kim)
김원화 (Won Hwa Kim)
김정환 (Jeong Han Kim)
Aaron Koblin (아론 코블린)
구동희 (Koo Donghee)
Ryota Kuwakubo (료타 쿠와쿠보)
Robert Lepage (로베르 르파주)
Alessandro Ludovico & Paolo Cirio (알레산드로 루도비코 & 파올로 치리오)
Daito Manabe & Motoi Ishibashi (다이토 마나베 & 모토이 이시바시)
Nathaniel Mellors (나타니엘 멜로스)
Seiko Mikami (세이코 미카미)
문준용 (Joon Y. Moon)
NMARA (뉴미디어아트 연구회)
Till Nowak (틸 노박)
Robert Overweg (로버트 오버벡)
Jon Satrom (존 새트롬)
Gordan Savičić & Bengt Sjöln (고단 사비치 & 벤트 쉴렌)
Jonathan Schipper (조나단 쉬퍼)
Joris Strijbos (조리스 스트리보스)
Jens Wunderling (옌스 분덜링)
윤지현 & 김태윤 (Ji-Hyun Yoon & Taiyun Kim)
Akram Zaatari (아크람 자타리)
Zimoun (지문)

<끝>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소개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2000년 '미디어시티'라는 명칭으로 개막하여 2년마다 열리는 국제 전시이다. 이 행사는 동시대 예술을 중심으로 과학, 인문학, 동시대 테크놀로지의 교류와 통섭을 기반으로 제작된 뉴미디어아트의 가장 탁월한 작품들을 시민들과 국내외의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대 전시 총감독으로는 김선정, 박일호, 이원일, 윤진섭, 송미숙 등이 있었고, 지난 12간 전 세계에서 1000명 이상의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에 참여하였다. <http://www.mediacityseoul.kr>